

# 조선왕릉 조성 및 관리에 따른 식재유형 고찰

김은경\* · 배준규\*\*

\*국립수목원 연구원 · \*\*국립수목원 연구관

## A Study on the Type of Planting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Kim, Eun-Kyoung\* · Bae, Jun-Gyu\*\*

\*Researcher, Korea National Arboretum

\*\*Research Officer, Korea National Arboretum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istorical records of what the trees had been planted like by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so that it could be utilized for historical records to manage the trees in the Royal Tombs. The research method was to analyze the related keywords for 40 trees out of 42 trees in 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referring to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朝鮮王朝實錄)," and "Neungji(陵誌)".

There are two types of planting called *Jeongsik*(定植) *Bosik*(補植) in the Royal Tombs. *Jeongsik*(定植) is a planting method by *Salleungdogam*(山陵都監), the office in charge of construction of the royal tomb when they were building the royal tomb. Every tree additionally planted after building up the royal tomb was called *Bosik*(補植).

The types of tree planting the composition and management of the royal tombs of Joseon are as follows. First, the first planting for landscaping was carried out during the process of building the province. Second, after the formation of Shanung, all the plants were planted by Wangmyung as additional plants. Third, due to the deforestation in the late Joseon period, additional plants were planted in the fertile plains. Fourth, trees were damaged due to natural disasters, and trees were planted together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botanical gardens. Fifth, in the 22nd year of King Jeongjo, all the royal families' graves were regularly planted.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history of forest landscape management for the restoration of the royal tombs of Joseon.

*Key words:* *Neungji*, *Muo-nyeon Sugyo*, *Bosik*(補植), *Neunghaeng*(陵幸), *Natural disaster*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왕릉의 조성 및 관리에 따른 식재 유형에 대해 문헌 기록을 분석하고, 향후 조선왕릉 수목관리를 위한 사적(史的)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조선왕릉 42기 중 40기를 대상으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편년체 사료와 『능지(陵誌)』 중심으로 식재와 관련한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능역의 수목식재는 정식(定植)과 보식(補植)으로 나눌 수 있다. 정식(定植)은 능침 조성 당시 산릉도감(山陵都監)에서 진행한 식재를 말한다. 능역 조성 후 이루어지는 모든 식재는 추가 식재 즉 보식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왕릉의 조성 및 관리에 따른 식재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능역 조성 과정 중 조경을 위한 1차 식재가 이루어졌다. 둘째, 산릉 조성 이후 모든 식재는 추가식재로 능행 중 왕명에 의한 식재가 실행되었다. 셋째, 조선후기 산림황폐화로 인하여 능침의 수목 희소처에 추가식재가 이루어졌다. 넷째, 자연재해로 인한 수목 훼손 후 보토공사와 함께 수목식재가 행해졌다. 다섯째, 정조 22년 모든 왕실가족의 무덤에 정기적인 식재가 법으로 정해졌다.

† **Corresponding Author** : Bae, Jun-Gyu, Division of Gardens and Education, 415 Gwangneungsumokwon-ro, Soheul-eup, Pocheon-si, Gyeonggi-Province, 11186 South Korea, Phone: +82-31-540-1032, E-mail:arboreta@korea.kr

본 연구는 조선왕릉 능계복원을 위한 역사경관림 관리의 사적고증으로서 향후 조선왕릉에 식재된 개별 수종과 능역 내 공간별 식재에 대한 문헌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능지, 능행, 무오년 수교 보식, 자연재해

## I. 서론

무덤 조성과 함께 식재가 이루어지게 되고, 무덤에 식재하는 행위는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인 일이라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연하고 일상적인 행위가 공간의 특별한 때문에 기록되었다. 조선왕실의 위엄과 국왕의 효심을 나타내는 공간-조선왕릉-일 경우 기록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일반 백성의 무덤에서 왕의 무덤에 이르기까지 무덤에 식재되는 수목의 경우 함부로 뽑거나 베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이것은 법으로 정하여 능침 화소(火巢) 내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하였다<sup>1)</sup>.

조선 후기 온돌의 보편화와 소빙기로 인한 땀감 수요의 상승으로 인해 도성 인근 산 뿐 아니라 지엄한 공간인 능침 또한 민동산이 되었다<sup>2)</sup>. 이로 인하여 도벌 실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매년 보충하여 식재할 것을 항식(恒式)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능침수목의 도벌을 막을 길이 없었다. 도벌로 인한 피해는 산사태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식재에 관한 명은 반복적으로 내려졌다. 실제로 조선왕릉에 얼마나 자주 어떤 시기에 식재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조선왕릉 식생 경관 및 생태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말부터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작은 199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주로 식물군집의 천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현·인릉의 식물군집 천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연구 당시의 식생경관에 대한 규명에 대한 것이었다<sup>[1]</sup>. 2000년대 이후 문화재청은 동구릉, 서오릉, 광릉의 산림생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왕릉의 식생관리기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sup>[2-7]</sup>.

산림생태 조사를 통하여 능침 주변의 소나무 군락의 쇠퇴와 참나무류의 우점 상황에 대해 밝혔다<sup>[8]</sup>. 이후 이루어진 능계복원과 관련한 연구 또한 현재를 기준으로 한 식생관리 기준에 대해 밝히고 있다<sup>[9][10][11]</sup>. 이러한 연구는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안 마련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능지(陵誌)와 의궤(儀軌) 기록을 통해 능침 주변 식재 현황과 관리에 대해 밝히고 있으며<sup>[12]</sup>, 조선왕조실록, 능지, 의궤 기록을 분석한 조선왕릉 수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sup>[13]</sup>. 그러나 조선시대 왕릉 조성 당시 이루어졌던 식재와 이후 능

역 관리 과정에서 실시되었던 식재 유형에 대한 문헌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식재기록 중 식재시기 및 식재유형에 대한 분석만을 진행하여 조선왕릉 조성 당시 식재를 비롯한 추가 식재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하여 조선왕릉 역사경관림 관리에 관한 사적 고증과 함께 조선왕릉 수목에 관한 문헌 사료 연구가 세분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편년체 사료(『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 능지 기록 중 식재와 관련된 단어를 '한국사DB[14]'와 '한국고전종합DB[15]'를 활용하여 왕릉의 식재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 분류하였다.

고문헌 자료들 중 왕릉 식재 기록을 찾기 위하여 능호(陵號), 공간, 수목, 풍수지리, 능지(陵誌)별로 관련된 키워드를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왕의 능호(陵號)와 묘호(廟號)뿐 아니라 능행(陵幸), 행행(幸行) 장소는 능침(陵寢), 능상(陵上), 정자각(丁字閣), 홍살문(紅箭門), 주산(主山), 청룡(靑龍), 백호(白虎), 안산(案山), 재실(齋室), 동구(洞口), 화소(火巢), 도국(圖局), 국내(局內), 능내(陵內)이다. 이 외에 풍수와 관련된 내용(來龍), 용호(龍虎), 길지(吉地), 사신사(四神砂)와 식재(植栽), 식목(植木), 재식(栽植), 파종(播種), 파식(播植) 등의 단어를 추가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능지』의 경우, 현전하는 능지는 모두 52종으로 파악되었으나<sup>[16]</sup>, 번역 작업이 완료된 6개의 능지, 헌릉(獻陵誌), 광릉지(光陵誌), 경릉지(景陵誌), 창릉(昌陵誌), 선정릉지(宣靖陵誌), 홍릉지(弘陵誌)를 중심으로 식재 및 능침 수목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조선 건국(1392)에서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하였던 1897년 10월 12일 이전 시기로 제한하였다. 조선왕릉과는 달리 황제릉으로 조성된 홍릉(洪陵), 유릉(裕陵)의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여 40기의 왕릉을 분석하였다. 유형 분석 시 해당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판단을 유보하였으며, 향후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Table 1. The Date of the Funeral and the Date of the Plantation

No.	Royal Tomb	Owner of a Tomb	Day of Funeral	Planting Records	Reason of Supplemental Planting
1	Geonwolleung (健元陵)	King Taejo	1408.09.09	1408.11.26	King's order
				1409.01.18	-
				1410.01.03	-
				1798.10.29	Law of Muo
2	Heolleung(獻陵)	Queen Wongyeong	1420.09.17	1421.01.05	-
				1421.02.01	-
		King Taejong	1422.09.06	1798.10.29	Law of Muo
				1799.03	Law of Muo
3	Sulleung(宣陵)	King Seongjong	1495.04.06	1496.02.29	-
		Queen Jeonghyeon	1530.10.29	1497.04.23	-
		Queen Gonghye	1474.06.07	1798.10.29	Law of Muo
4	Sungneung(崇陵)	King Hyeonjong	1674.12.13	1683.01.12	Bare Mountain
		Queen Myeongseong	1684.04.05	1716.11.16	-
				1798.10.29	Law of Muo
5	Changneung(昌陵)	King Yejong	1470.02.05	1704.05.23	Bare Mountain
				1794.11.21	Bare Mountain
				1789.10.29	-
		Queen Ansun	1499.02.14	1798.07.09	Bare Mountain
				1798.10.29	-
1800.11.22	Bare Mountain				
6	Myeongneung(明陵)	Queen Inhyeon	1701.12.09	1704.05.23	-
				1705.03	Bare Mountain
				1757.06.20	Bare Mountain
		King Sukjong	1720.10.21	1769.09.11	Natural Disaster
		Queen Inwon	1751.07.12	1785.06.16	-
1798.10.29	Law of Muo				
7	Uireung(懿陵)	King Gyeongjong	1724.12.16	1724.09.25	-
				1724.10.09	Bare Mountain
		Queen Seonui	1730.10.19	1725.01.16	Bare Mountain
				1725.08.27	-
				1726.08.30	Bare Mountain
				1727.02.02	-
8	Jangneung(長陵)	Queen Inyeol	1636.04.11	1798.10.29	Law of Muo
		King Injo	1649.09.20	1731.09.26	-
9	Ingneung(翼陵)	Queen Ingyeong	1681.02.22	1769.09.11	Natural Disaster
10	Gwangneung(光陵)	King Sejo	1468.11.28	1792.09.11	Bare Mountain
		Queen Jeonghui	1483.06.12	1798.10.29	Law of Muo
11	Hongneung(弘陵)	Queen Jeongseong	1757.06.04	1794.11.20	Bare Mountain
				1798.10.29	Law of Muo
12	Jeongneung(貞陵)	Honorary Empress Sindeok	1397.01.03	1797.02.16	Bare Mountain
				1797.07.09	Natural Disaster
13	Hureung(厚陵)	Queen Jeongan	1412.08.08	1798.10.29	Law of Muo
		King Jung Jong	1420.01.03		
14	Jereung(齊陵)	Honorary Empress Shineui	-	1798. 10.29	Law of Muo
15	Hyeolleung(顯陵)	Queen Hyeondeok	1441.09.21	1798.10.29	Law of Muo
		King Munjong	1452.09.01	1798.10.29	
16	Jangneung(莊陵)	King Danjong	1669.06.27	1798.10.29	Law of Muo
17	Sareung(思陵)	Queen Jeongsun	-	1798.10.29	Law of Muo
18	Gyeongneung(敬陵)	King Deokjong	1457.11.24	1798.10.29	Law of Muo
		Queen Sohye	1504.05.01	1798.10.29	Law of Muo
19	Gongneung(恭陵)	Queen Jangsun	1462.02.25	1798.10.29	Law of Muo
20	Huireung(禧陵)	Queen Janggyeong	1515.閏04.04	1798.10.29	Law of Muo
21	Sunreung(順陵)	Queen Inseon	1474. 06.07	1798.10.29	Law of Muo
22	Jeongneung(靖陵)	King Jungjong	1545.02.09	1798.10.29	Law of Muo

23	Olleung(溫陵)	Queen Dangyeong	-	1798.10.29	Law of Muo
24	Taereung(泰陵)	Queen Munjeong	1565.07.14	1798.10.29	Law of Muo
25	Hyoreung(孝陵)	King Injong	1545.10.15	1798.10.29	Law of Muo
		Queen Inseong	1578.02.01	1798.10.29	Law of Muo
26	Gangneung(康陵)	King Myeongjong	1567.09.22	1798.10.29	Law of Muo
		Queen Insun	1575.04.28	1798.10.29	Law of Muo
27	Mongneung(穆陵)	Queen Uiin	1600.12.22	1798.10.29	Law of Muo
		King Seonjo	1608.06.12	1798.10.29	Law of Muo
		Queen Inmok	1632.10.06	1798.10.29	Law of Muo
28	Jangneung(章陵)	King Wonjong	-	1798.10.29	Law of Muo
		Queen Inheon	1627.08.27	1798.10.29	Law of Muo
29	Hwireung(徽陵)	Queen Jangnyeol	1688.12.16	1798.10.29	Law of Muo
30	Hyeoreung(惠陵)	Queen Danui	1718.04.18	1798.10.29	Law of Muo
31	Yeongneung(永陵)	Honorary Emperor Jinjong	1729.01.26	1798.10.29	Law of Muo
		Honorary Empress Hyosun	1752.01.22	1798.10.29	Law of Muo
32	Yungneung(隆陵)	Honorary Empero Jangjo	1789.10.07	1798.10.29	Law of Muo
		Honorary Empress Heongyeong	1816.03.03	1798.10.29	Law of Muo
33	Wolleung(元陵)	King Yeongjo	1776.07.27	1798.10.29	Law of Muo
		Queen Jeongsun	1805.06.20	1809.02.21	Law of Muo
34	Gyeongneung(景陵)	Honorary Empress Hyohyeon	1843.12.02	1798.10.29	Law of Muo
		King Heonjong	1849.10.28	1798.10.29	Law of Muo
35	Yereung(睿陵)	Honorary Emperor Cheoljong	1864.04.07	1798.10.29	Law of Muo
		Honorary Empress Cheorin	1878.09.18	1798.10.29	Law of Muo
36	Geolleung(健陵)	Honorary Emperor Jeongjo	1800.11.06	1801.02.09	Natural Disaster
		Honorary Empress Hyoui	1821.09.13	1802.02.10	-
				1802.02.28	-
				1804.11.06	-
				1805.10.12	-
37	Sureung(緜陵)	Honorary Emperor Munjo	1830.08.04	1846.09.10	Large Area
		Honorary Empress Sinjeong	1890.08.30	-	-
38	Illeung(仁陵)	Honorary Emperor Sunjo	1835.04.09	1857.02.28	Bare Mountain
		Honorary Empress Sunwon	1857.12.17	1857.03.13	Bare Mountain
39	Yeongneung(英陵)	Queen Soheon	1446.07.19	1857.04.13	Bare Mountain
		King Sejong	1450.06.12	1858.02.18	Large Area
				1859.10.28	Bare Mountain
40	Nyeongneung(寧陵)	King Hyojong	1659.10.28	1857.04.13	Bare Mountain
		Queen Inseon	1674.06.04	1858.02.18	Large Area
				1859.10.28	Bare Mountain

조선왕릉 식재 기록을 찾기 위해 키워드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추출, 수목 기록을 연대순으로 분류하였으며, 능지의 수목 식재 기록 또한 함께 분류하여 표를 작성하였다(Table 1).

### III. 결과 및 고찰

#### 1. 산릉 조성 시 수목식재: 1차 식재

왕이나 왕후의 장례가 치러지는 날까지 모든 산릉 조성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 국장 기간에 가장 오랜 시간 논의하는 일은 택지(擇地) 선정으로, 산릉의 입지 결정을 위해 대신들과 도감의 신하들 뿐 아니라 지사(地師)도 참여하여 길지(吉地)

라고 전해지는 땅을 간심(看審)하여 논의한 후 국왕의 승인을 받게 되는 구조였다. 심사숙고를 거쳐 선정한 능지일지라도 완벽한 길지인 곳은 없었다. 택지의 부족한 부분을 비보(裨補)를 통해 보완하였으며, 비보의 대표적인 방법이 수목식재였다. 왕릉 조정을 위한 식재는 필수적인 절차로 모든 왕릉은 조영(造營)과 함께 1차 식재가 이루어졌다.

능침 조성 과정 중 수목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곳이 의릉(懿陵)이다. 영조는 화소의 면적을 넓게 잡을 경우 생기는 백성들의 피해를 고려하여 백성의 전답이 화소 안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홍살문 좌우에 나무를 기르기 위해 좁게 만들면 안된다고 하였다<sup>3)</sup>.

의릉 조성 시 총호사를 맡았던 이광좌(李光佐)는 의릉의 능상이 매우 낮아 큰 길에서 보이는 문제는 오랜 세월 나무를 길

러 가리면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의릉은 오직 나무가 잘 자라도록 힘쓰는 것을 방법으로 삼게 되었다.

의릉의 내룡(來龍)이 되는 돌곶이 고개는 동오릉<sup>4)</sup> 행차 시에도 이 길을 통해 왕래하게 되어 의릉 뿐 아니라 동오릉도 길에서 뿐 아니라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보였다. 이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능침의 수목이 점점 줄어들어 큰 길에서도 능침이 바로 보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목을 식재하여 울창한 숲을 만들어 길에서 의릉의 능침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에 힘쓰도록 지시하였다<sup>5)</sup>. 산릉도감이 중심이 되어 차폐(遮蔽)를 목적으로 한 식재가 이루어졌다.

산릉도감에서 산릉을 조성하는 기간은 평균 5개월에 불과하여 능역 전체에 식재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국장을 마친 후 왕의 능행을 통하여 왕명에 의해 추가적인 식재가 이루어졌다. 국장 이후 이루어지는 모든 식재는 추가식재 즉 보식(補植)이라고 할 수 있다.

## 2. 능침 관리 시 추가 식재

### 1) 능행을 통한 추가 식재

산릉 조영을 마친 후 추가식재[보식(補植)]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능행을 통한 식재, 수목 희소처에 시행된 식재, 자연재해로 인해 이루어진 식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능행을 통해 이루어진 식재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산릉조성 당시 수목 식재가 어려운 경우, 장례가 치러진 시기가 여름일 경우, 왕의 행차로 인하여 추가 식재가 이루어졌다. 태조의 능인 건원릉(健元陵)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산릉 조성을 마친 후 즉위한 왕이 능행(陵幸)을 실시하는 시기는 평균 6개월 뒤였다. 실제적으로 왕이 산릉을 처음으로 방문하여 봉심하는 시기로 이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식재를 명령하였다. 태종은 다른 왕들과 달리 태조의 장례에 직접 참관하였으며, 장례 전날 능역을 두루 살펴보았다. 이렇게 이루어진 첫 번째 명령이 태종 8년 11월 26일 기록이다<sup>6)</sup>.

“능침(陵寢)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없는 것은 예전 법이 아니다. 하물며 전혀 나무가 없는 것이겠는가? 잡풀을 베어버리고 소나무와 잣나무를 두루 심으라.”

능침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없는 것은 이유가 있었다. 태조는 1408년 5월 24일 승하하였다. 태조의 승하 이후 6월 큰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났으며, 왜선의 침입이 2차례 발생하였다<sup>7)</sup>. 6월 28일에서야 택지가 양주(楊州)의 검암(儉巖)으로 선정되었다<sup>8)</sup>. 7월에는 황충(蝗蟲)의 피해가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으며, 장마로 인한 기청제(祈晴祭)가 실시되었다<sup>9)</sup>. 본격적인 공

사의 시작은 풀을 베고 흙을 파는[참초파토(斬草破土)] 일이 시행된 8월 25일<sup>10)</sup>이었다. 실제 국장이 치러진 날은 9월 9일<sup>11)</sup> 능의 석물 조성을 끝내기도 벅찬 시간이었다. 오랜 장마와 여름이라는 계절적인 제약으로 인해 식재가 어려웠다. 두 달 뒤인 1408년 11월 26일 건원릉에 행차하여 수목 식재를 명하였던 것이다. 이후 태종은 3차례 더 능행하였으며, 식재를 명령하였다.

산릉 조성 이후 산릉의 능역이 광활할 경우, 능행을 통하여 추가 식재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예가 의릉(懿陵)이다. 의릉은 일반 민가와 전답이 있던 곳에 조성된 능으로 전답은 묵히고 백성들의 민가는 옮겨 이사한 후 집터를 파고 흙으로 메우는 작업을 하여 조성되었다. 영조는 국장 후(1724년 12월 16일) 한 달 뒤 의릉에 행차하여 안산(案山)에 수목을 심는 일에 대해 논의하였다.

“능역 내에 역사할 곳이 이처럼 크고 넓어서 신 역시 도감과 일찍이 상의하였지만 농사철에 백성을 동원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심는 것은 제 때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도의 각 능 수호군은 입번한 자 외에도 많이 있으니, 그들로 하여금 각 능의 화소 밖에 있는 잡목을 채취하여 이곳으로 옮겨 심게 하고, 또 현릉의 수호군이 전나무와 잣나무를 옮겨 심으면 일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은 다음에 만약 고사하거나 손상되는 폐해가 있으면 또한 당초에 나무를 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곳곳마다 다시 심게 한다면 수목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sup>12)</sup>.” 하였다.

의릉의 경우를 통하여 왕의 능행 시에 구체적인 수목 관리 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식재 인력 및 수목채취 장소와 함께 식재 이후의 관리에 대하여 보고하고 이에 대한 국왕의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2) 수목 희소처에 실시된 식재

추가 식재가 가장 필요한 공간은 수목이 드문 곳, 즉 희소처(稀少處)라고 할 수 있다. 능침을 관리하는 능관은 봉심을 통하여 수목이 없는 곳에 대해 예조에 보고하고 예조에는 왕에게 보고하게 된다. 그 중 조선후기 가장 많은 추가식재는 수목 희소처이다.

“승릉(崇陵)의 가까운 안산과 먼 안산 사이 큰 들 하나를 건너서 전면에 마주보는 산 하나가 있는데 매우 기암과 중요하나 화소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초목이 없어 산 전체가 민등산이라면 보기에 매우 미안합니다. 해조로 하여금 경계를 정하고 초목을 심어 기르게 하고 화재와 벌채를 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니까<sup>13)</sup>

산전체가 민둥산이 되어 보기에 매우 미안하다는 경관상의 이유로 식재하고 금양(禁養)하여 벌채를 금하도록 하였다. 민둥산에 대한 기록은 1683년 기록에 처음 나타났다. 이후 민둥산, 벌거숭이산에 대해 언급이 지속되며 추가 식재가 이루어졌다. 또한 수목이 성글어서, 또는 나무가 적어서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식재가 이루어졌다. 수목이 적어서 추가 식재한 능으로는 승릉, 창릉, 명릉, 의릉, 홍릉(弘陵), 정릉(貞陵), 인릉, 영릉(英陵), 영릉(寧陵)을 들 수 있다.

### 3) 재해로 인한 추가 식재

조선왕릉에 수목을 식재한 시기는 여름과 겨울 두 시기를 제외하고 식재가 이루어졌다. 먼저 수목 식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태종은 태조의 장례가 끝난 후 처음으로 건원릉에서 동지제(冬至祭)를 지낸 후 건원릉에 나무가 전혀 없다고 말하였다. 건원릉에 나무가 전혀 없다는 것은 건원릉 조성 당시 수목을 심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건원릉이 조성될 당시는 더운 여름으로 비로 인한 피해가 많았으며, 메뚜기의 피해도 극심한 때였다. 이 때는 수목을 심는 기간이 아니었으므로 수목이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산사태로 인하여 흩어 탈락(脫落)한 곳에 보토(補土)하고 식재한 기록은 영릉(寧陵)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영릉 초창지에서는 능 안에 빗물이 고이고, 석물에 흠집이 있다는 이유로 천릉이 단행되었다. 이 때 새로운 능지로 선정된 곳이 여주 홍제동(弘濟洞)으로 현재 위치한 여주 능내리다. 이후 영릉은 홍제동으로 천릉한 이후에 가장 많은 보축공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산사태 후 식재한 또 다른 기록이 있다. 영조 45년 9월 익릉과 명릉에 사태가 나게 된다. 사태의 이유를 나무가 적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각 능침에 봄·가을을 기다려 잡목(雜木)을 많이 심게 하되, 심은 그루의 수를 본조에 보고하고, 본조에서는 낭관을 보내어 적간(摘奸)하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정식(定式)을 삼게 하였다<sup>14)</sup>. 앞서 사태가 난 후의 보축 공사 후에 식재가 이루어진 경우를 살펴보았다. 사태로 인한 보축 공사가 아니라 길이 파인 곳에 보토를 한 경우에도 식재라는 기록이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수목이 식재되거나 사초를 입혔을 것이다. 보축한 후 식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비만 와도 흩어 유실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식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나 산불로 의한 피해 후 식재가 이루어졌다. 인조 15년(1637)과 현종 2년(1661) 산불이 일어났다. 특히 인조 15년 현릉의 불은 동풍이 크게 불어 3일간 연기와 화염이 끊이지 않았다.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인조가 남한산성에 거처할 때라서 이후 현릉의 수목에 대한 기록은 보이

지 않으나 당시 많은 수목들이 불에 타서 소실되었을 것이다. 능역의 수목이 불탄 후 식재가 이루어졌을 것이나 이것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 3. 법으로 정해진 정기식재(定植): 무오년 수교

모든 왕릉은 조영과 더불어 수목을 식재하였다. 그러나 정조 22년(1798, 무오년) 7월 9일 모든 능원묘에 수목 식재를 명령하고 이를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하였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서에 해당하는 별단(別單)은 정조 22년 10월 29일 기록에 나타난다<sup>15)</sup>. 정조 23년(1799) 3월 30일, 11월 11일 각 능·원·묘(陵園墓)에서 실제 식재된 수종과 수량에 대한 기록이 있다.

숙종, 영조, 정조시기에 이르러 왕릉에 식재하는 수목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17, 18 세기는 목재의 상품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온돌의 일반화, 상용화로 인하여 뿔감의 수요가 많아지게 되어 산림은 더욱 황폐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왕릉의 수목 또한 작별되어 황폐해지게 되었다. 숙종 시기에 반포되었던 수교(受教)는 작별을 금하는 수교이나 정조 대에 반포되는 수교는 식재와 관련된 사항이 담겨 있다. 극심해진 작별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식재하는 것뿐이었다. 정조는 정조 22년 무오년에 모든 능원묘에서는 매년 봄·가을로 파종하고 식재하도록 하는 수교를 반포하였으며, 오직 울창해지는 것에 전념하도록 명령하였다. 정조의 명을 통하여 경관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왕과 왕후를 포함한 왕실 가족들의 무덤인 능·원·묘(陵園墓)에 식재하는 수목에 대한 일정한 법식을 정하여 식재 시기의 일관성을 갖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되었다. 정조 22년 8월 정조는 장릉(長陵) 헌관(獻官) 신대현(申大顯)으로부터 장릉의 묘역 내 여러 곳을 간심하고 탈이 있는 곳에 대해 보고받았다. 말라서 훼손된 수목을 교체하여 보충하여 심는 것에 전념하여 울창하게 하도록 명하였다.

“(전락)총용사를 이 일을 위해 금장(禁將)으로 옮겨 제배(除拜)했으니 물러가 지방관 및 능관·도백과 상의하여 올 가을과 겨울부터 상수리나무를 파종하고 소나무를 심어, 내년 봄이 되면 더욱 더 마음을 쓰고 가을역시 똑같이 하라. 금장이 전담하여 검속하고 신칙하라. 모든 뜰처리할 일 역시 이 장신(將臣)이 주관하게 하였으니 몇 년 안 되어 장차 파종한 씨앗이 흙을 뚫고 나오고 심은 나무 역시 짙어 터서 예전의 아름다운 경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sup>16)</sup>.”

능침에 봄·가을로 나무를 심는 일은 무오년(1798)부터 규정을 정해 문서를 작성하여 각 능원묘에서 시행하도록 하였다.

무오년 수교의 중심 내용은 매년 3월과 10월에 씨를 뿌리고 심은 숫자를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즉, 식재한 소나무의 숫자와 파종한 도토리 자라는 밀도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를 감독하기 위해서 현관, 승지, 사관이나 선전관 중에서 추천하여 숫자대로 심었는지 고찰하도록 하였으며, 근무의 성실한 정도에 따라 상을 주고 징계를 하도록 하였다.

#### 4. 종합고찰

조선왕릉 능제복원 사업에 따라 2010년부터 역사경관림 복원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역사경관림 관리에 관한 사적 고증 연구 또한 병행 추진되었다. 조선왕릉의 능제복원과 관련하여 역사경관림 관리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문헌 기록을 분석하여 왕릉 조성 당시의 상황을 복원하는 일은 지난한 작업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고문헌 연구의 경우 현재 상황에서 과거의 한 시점에 기록된 문헌을 분석하는 것으로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과거와 달라진 현재 상황에서 과거로의 회귀나 복귀는 시대를 역행하는 연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조선왕릉 식재 기록에 대한 문헌 연구는 미래의 왕릉 숲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현재 역사경관림 관리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재해로 인한 추가 식재는 현재 역사경관림 관리에서도 실행 가능하다.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태풍이나 폭설로 인한 수목 피해 후 식재가 이어져야 한다. 현재는 피해목의 제거 후 추가 식재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적 자료를 근거로 피해목의 상황 파악 후 보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조선왕릉 수목식재 기록은 식재 유형을 분석한 것 외에 식재수종 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 제공과 더불어 조선왕릉 조영 당시의 모습 뿐 아니라 조선왕릉의 수목 관리, 산림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향후 각 능별 식재수종 및 능역 공간별 식재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조선왕릉의 역사경관림 관리에 사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조선왕릉 식재기록을 분석하여 조선왕릉 조영 및 조선왕릉 관리 과정에서 행해진 식재유형에 대해 밝혔다.

첫째, 모든 조선왕릉은 산릉도감에서 산릉을 조성하는 과정 중 봉분, 석물, 제향 공간 건축 및 조경을 위한 수목식재가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1차 식재이며 능역 조성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산릉 조성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식재는 추가식재로 국왕의 능행 이후 왕명에 의한 수목식재가 이루어졌으며, 능침 봉이 중심이 되어 수목 식재 시기가 아닐 때 능침이 조성되었거나, 능역이 광활하여 산릉 조성 기간에 식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 보식이 이루어졌다.

셋째, 17세기 후반 딸감 마련 및 건축 자재 확보를 위한 산림 파괴가 능침 수목에 나타났으며, 수목이 성긴 곳이나 수목이 듥성듬성한 곳인 수목 희소처에 추가식재가 시행되었다.

넷째, 화재,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목이 훼손된 경우 보토 공사와 함께 수목 식재가 행해졌다.

다섯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 능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추가식재는 영. 정조시기 능원묘의 수목 훼손의 정도가 심해지자 정조 22년에 왕실 가족의 무덤 즉, 모든 능원묘(陵園墓)에 정기적인 식재와 함께 식재 후 예조에 보고하는 것이 법률로 정해졌다.

본 연구는 조선왕릉 능제복원을 위한 역사경관림 관리의 사적 고증의 일환으로 식재유형에 대한 문헌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향후 조선왕릉에 식재하였던 개별 수종에 대한 문헌 고증과 함께 능역 내 공간별 식재에 대한 사적 고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지속적인 후속과제로 삼는다.

주 1) 『승정원일기』 숙종 30년 5월 23일, 陵寢火巢內, 一草一木, 皆不敢下手者, 乃是國法.

주 2) 『철종실록』 2월 28일 경술, 邱木之愛, 貴賤無間, 一枝一葉, 或有枯損子孫之心, 猶爲如失, 而況近五百年 或二三十年 禁護而長養者, 斧斤狼藉, 全局童濯, 思之及此, 不覺驚悚而傷痛, 將如之何? 舊新出條, 雖曰難辨, 新斫之痕, 尙可易究, 陵園屬, 秋曹一一查問得情, 陵園官使之交相替直, 而令該府拿問定罪, 雖以地方官言之, 英, 寧兩陵, 逐年補植, 既有年前定式, 則設有犯斫之弊, 亦宜有培茂之處, 而一切無之, 其舉行委折, 一體拿問以聞.

주 3)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25일, 雖不得如 他陵限數, 宜使民畜, 不至多入也, 紅箭門前, 則既有神路, 又有望陵禮過行處, 左右樹木, 亦當長養, 此則自不可使太狹.

주 4) 동오릉은 태조(太祖)의 능인 건원릉(建元陵), 문종(文宗)과 현덕왕후(顯德王后)의 능인 현릉(顯陵), 인조(仁祖)의 계비 장렬왕후(莊烈王后)의 능인 휘릉(徽陵), 선조(宣祖)와 의인왕후(懿仁王后)와 계비 인목왕후(仁穆王后)의 능인 목릉(穆陵), 현종(顯宗)과 명성왕후(明聖王后)의 능인 승릉(崇陵)을 말한다. 이후 경종의 비 단의 왕후(端懿王后) 심씨의 혜릉(惠陵)·영조와 그의 계비(繼妃) 정순 왕후 김씨의 원릉(元陵)을 동질릉, 수릉(綏陵), 경릉(景陵)을 합하여 동구릉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영조 당대에는 동오릉에 해당한다.

주 5)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25일, 上曰, 新陵自大路望見乎? 光佐曰, 陵上雖低, 年久養木, 則可以遮蔽, 而即今則行路皆望見矣, 檀曰, 望見處, 則行人, 似不宜跨馬, 光佐曰, 惠陵亦自路望見, 而五陵皆然矣, 重茂曰, 徽陵·崇陵則不至直見矣, 光佐曰, 望見處, 則會不下馬云矣, 臣爲看山, 出往五陵內時, 行過一隅, 望見惠陵陵上石物, 不至年久, 故石色不變, 奪人耳目, 臣停轡驚問, 則下輩答以, 稍爲深入後, 自有下馬處, 而此處則甚遠, 不可步, 又於五里亭, 則以藍輿待之云矣, 竊念望見

之後, 不即下馬者, 似以有異於橫過故也, 而猶不敢自安, 下轎步出, 促藍輿, 則藍輿未及到, 而行甚忙, 故不得已復乘轎, 至藍輿來待處, 則果有下馬牌矣. 還時則以藍輿出洞口外, 始敢乘轎矣. 檀曰, 五陵內樹木茂盛時, 行人不至望見矣. 近年以來, 樹木漸無, 故雖稍遠處, 亦皆望見矣. 新陵則唯以長養樹木, 爲務似好.

- 주 6) 『태종실록』 “陵寢無松柏, 非古也. 況童而無樹乎? 夷別雜卉, 遍植松柏.”
- 주 7) 『태종실록』 8년 6월 11일 “동북면에 큰비가 내려서 물이 넘쳤다.” 동년 6월 14일 “왜선(倭船) 15척이 장연진(長淵鎭)의 아랑포(阿郎浦)에 입구(入寇)하니, 병마사(兵馬使) 유은지(柳殷之)가 싸워 물리치고 2급(級)을 베풀었다.” 동년 6월 24일 “왜선 12척이 선주(宣州)에 입구(入寇)하였다.”
- 주 8) 『태종실록』 8년 6월 28일. “산릉(山陵)을 양주(楊州)의 검암(儉巖)에 정하였다.”
- 주 9) 『태종실록』 8년 7월 7일. 춘주(春州)에 황충(蝗蟲)이 일었다. 동년 7월 15일 강원도의 원주·정선·인제와 풍해도(豊海道)의 봉주·장연에 메뚜기의 피해가 발생하다. 동년 7월 17일. 예조에서 포제(醮祭)를 행하는 의식을 아뢰다. 동년 7월 23일. “오랜 비[雨]로 인하여 경성(京城) 사문(四門)에 기청제(祈晴祭)를 지냈다.”
- 주 10) 『태종실록』 8년 8월 25일. 산릉사(山陵使) 이직(李稷)을 보내어 산릉의 참초제(斬草祭)와 개토제(開土祭)를 행하였다.
- 주 11) 『태종실록』 8년 9월 9일. 임금이 영구를 받들어 건원릉(健元陵)에 장사하였다.
- 주 12) 『승정원일기』 영조 1년 1월 16일. 且陵內役處, 如是浩大, 臣亦曾相議於都監矣, 農節百姓, 誠難動役, 而至於種樹, 則不可不及時栽植, 本道各陵守護軍, 入番之外, 亦多有之, 使之採取 各陵火巢外雜木, 移種於此處, 而獻陵守護軍, 亦使之移種檜栢, 則事甚便宜, 而栽植之後, 若有枯損之弊, 則亦令當初栽植之人, 隨處更栽, 則庶可有長養之望矣.
- 주 13) 『비변사등록』 숙종 9년 1월 12일. 崇陵近案遠案之間, 越一大野, 有一前對之山, 頗爲親切, 而不入於火巢之內, 故全無草木, 容山(山谷)濯濯, 所見極爲未安, 令該曹定界, 養植草木, 禁火禁伐, 何如.
- 주 14) 『영조실록』 영조 45년 9월 11일. 禮曹判書李潑, 以兩陵沙汰, 由樹木稀疎, 請自今各陵寢, 趁春秋多植雜木, 所種株數, 報本曹自本曹, 遣郎官摘奸, 上從之, 著爲定式, 驗其多寡, 以爲考績之地.
- 주 15) 『일성록』 정조 22년 무오 (1798) 10월 29일. 禮曹啓言各陵園墓所植木株數播橡斗數別單書入而顯隆園園所植木則待明春舉行事有所報來矣教以待春植使之更爲報來從別單啓聞則當有考察又待播種之着根出土分春秋審察此意嚴飭.
- 주 16) 『비변사등록』 정조 22년 1798년 08월 17일. 摠帥爲此役, 移拜禁將, 退與地方官及陵官·道伯相議, 自今秋冬, 播橡實植松樹, 待開春益加着意, 秋亦如之, 禁將專管檢飭, 凡有可以稟處之事, 亦令此將臣主管, 則不出數年, 將見播者出土, 植亦茁然, 復舊觀之美, 似不至於其用力舉行條件, 商量條錄, 更爲登對稟處事, 令禁將知悉, 廟堂亦不可不知, 至於播植物力, 使之往復廟堂, 從便拮据爲良如教.

## REFERENCES

[1] Lee, K. J., Oh, K. K., Woo, J. S. and Song, K. J.(1990). Studies on the Vegetational Landscape Structure and Administration Planning of the Royal Tomb (II): Successional Trends of the Plant Community of Heonin Royal Tomb.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17(3): 35-47.

- [2] Lee, S. and Jin, S. C.(2002). Analysis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for the Landscape Management of the Heritage Site: A Case of Dongguneung, Kyunggi Province. Journal of the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20(4): 366-377.
- [3] Cho, A. Y.(2008). A Research on the Vegetation Management Criteria for the Royal Tombs of Joseon Dynasty: Focused on Donggureung, Gwangneung, and Seoreung.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 [4] Kim, M. S., Lee, K. J., Kim, J. Y. and Hur, J. Y.(2015). A Study on the Change and Management of Historical Landscape Forest of Taeneung, Joseon Dynasty Royal Tomb, Seoul, Korea.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3(2): 56-72.
- [5] Lee, S. J.(2013).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Characteristics of Vegetation Structure on Emperor Tomb in the Great Korean Empire: In Case of Hongyureung(Tomb), Namyangju, Gyeonggido.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 [6] Jung, J. M.(2014). A Study on the Assessment and Improving Methods of the Vegetation Landscape in World Culture Heritage Donggureung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Korea.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 [7] Lee, C. H. and Kim, D. G.(2017). A Study on the Conservation for the Historic Landscape of Yungneung and Geolleung.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5(2): 45-57.
- [8] Cho W. Y. (2008). A study on the Restoration of 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Doctoral thesis, Sangmyung University.
- [9] Lee, C. H., Lee, S. P., Jong, J. S., Jeon, H. W., Kim, K. Y. and Choi, J. H.(2009). A Study on the Restoration of the Royal Tomb's System in the Joseon Dynasty : Focused on Taereung and Gangreung.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7(2): 59-71.
- [10] Lee, C. H., Jong, J. S., Lee, W. H. and Choi, J. H.(2010). A Study on the Restoration of the Royal Tombs in the Joseon Dynasty: Focused on Gimpo Jangreung.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8(2): 86-97.
- [11] Lee, C. H., Jong, J. S., Lee, W. H. and Choi, J. H.(2010). A Study on the Restoration of the Royal Tombs in the Joseon Dynasty: Focused on Ureung Gunreung.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8(3): 39-52.
- [12] Lee, S. and Kim, Y. M.(2004). The Planting and the Maintenance around 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Focusing on the Seo-O-Reung.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2(1): 88-101.
- [13] Kim, E. K.(2015). A Study on the tree planting of the royal tomb of the Joseon Dynasty. Doctoral thesis, Kookmin University.
- [14] <http://db.itkc.or.kr>
- [15] <http://db.history.go.kr>
- [16] Yoo, J. B.(2014). Study on Neungji in Joseon Dynasty: Focusing on Changleungji. Journal of Jangseogak Archives. 31(-): 180-209.

원 고 접 수 일: 2019년 1월 31일

심 사 일: 2019년 2월 25일 (1차)

: 2019년 3월 8일 (2차)

: 2019년 3월 12일 (2차)

게 재 확 정 일: 2019년 3월 12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